

1. 출장 일정

일 자	행 선 지	활동사항	비 고
11월 4일 (일)	상하이 더블트리 호텔	· 박람회 및 포럼 등록 · 공식 만찬 참석	주최측 참석 요청
11월 5일 (월)	상하이 컨벤션 센터	· Hongqiao International Business Media & Think Tank Forum 참석	
11월 6일 (화)	상하이 컨벤션 센터	· 수입박람회 참관	

2. 11월 4일, 포럼 등록 및 공식 만찬 참석

- 4일 오전, 싱크탱크 포럼 참석 관련 등록
 - 회의 등록, 포럼 및 수입박람회 관련 자료 수령
 - 변경된 회의 일정 확인, 추가 변경 관련 연락망 확인

 - 포럼 초청기관인 CCIEE 요청에 따라, 500~600명 규모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, 포럼에 참석하는 중국 국내외 주요 인사와 교류
- * CCIEE가 주관한 "Symposi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Value Chain Remodeling" 일정 변경에 따라 참석하지 못함

3. 11월 5일 오후, Hongqiao International Business Media & Think Tank Forum 참석

- 본 포럼은 "Build and Communicate an Open World Economy"를 주제로, 중국 중앙선전부 황쿤밍 부장의 기조 연설 및 중국 국내외 귀빈의 축사를 통해 중국의 추가 개방을 지지하면서, 개방된 국제경제 시스템 구축과 국가 간 협력을 강조
 - 1세션(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언론과 싱크탱크의 역할)에서는 중국 및 영국, 유럽, 러시아, 중동 등의 미디어 및 싱크탱크 대표가 언론과 싱크탱크의 역할 중 개방 및 세계화의 방향 제시, 관찰·감독 및 피드백, 상생 협력 방안 제시 등을 강조
- 2세션(개방된 중국과 세계 발전)에서는 중국의 개방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협력 심화에 대한 기대 등이 주로 논의됨.
 - 중국의 개방 및 일대일로 정책을 한국의 신북방·신남방 정책과 연계 협력하여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것을 제안

5. 11월 6일, 국제수입박람회 참관

- 172개 국가(+국제기구), 3,600여 개 기업 및 40만 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수입박람회의 주요 전시관 참관(면적은 30만㎡로 축구장 42개 규모)
 - 한국기업은 273개 업체 참가(대기업 10개), 한국은 국가관도 설치(국가관 설치 국가는 총 7개국)
 - 참가기업은 생활용품(아모레퍼시픽·LG생활건강), 농수산물(농심·풀무원·농협·롯데), 생활가전(코웨이·SK하이닉스) 등 소비재 분야 기업이 다수
 - 참가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(450개 업체, 국가관 비설치)

- 수입박람회 주최측의 발표에 따르면, 이번 박람회 기간(11.5~11.10)의 수입 계약 규모는 578.3억 달러이며 그중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계약은 47.2억 달러로 전체의 10% 이하
- 분야별 계약 규모는 스마트제조(첨단장비) 164.6억 달러, 식품·농산물 126.8억 달러, 자동차 120억 달러, 의료기계 57.6억 달러, 소비가전 43억 달러, 패션·일용소비재 33.7억 달러, 서비스 32.4억 달러 등
- 그러나 중국 내 글로벌기업 단체 등에 따르면, 새로운 구매보다는 올해 예정된 계약을 박람회 시기에 맞춰 발표한 밀어내기식 실적이 많으며, 중국이 구체적인 수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.